

## 사보타즈닉 ( SABOTAJNIK)

사보타즈닉 ( SABOTAJNIK)은 대단히 잘 알려진 프랑스케익(cake)이다.

그런데 이 케익 명칭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리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러시아어에서 연유해온 것을 보여주는 « 닉 »(nik)이라는 어미는 프랑스어에서 볼 때, 그리 달갑지 않은 느낌을 주며, 공격적인 의미를 주는 어간 « 사보타즈 »(sabotage ; 방해공작이라는 뜻 )는 처음 보기에는 어떠한 이론적인 설명으로도 이해되어지지 않아 보인다.

사보타즈닉은 20 세기의 프랑스 케익의 역사에 기여한 외국적 다양성을 잘 나타낸다.

이케익은 슬라브케익 « 시르닉(syrnik) »에서 파생된 것으로 동유럽에 이산된 유대인에 의해서 프랑스에 들어왔다. 그래서 이것은 레몬 맛의 **하얀크림치즈(fromage blanc)**를 무척 좋아하는 슬라브 사람들의 입맛에 맞아야 했다. 이로부터 이 케익이 소화하기 어려운 미국의 치즈케익의 유행에 가치를 떨어뜨리는 동화를 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케익의 맛의 특징은 다양한 열대지방 과일을 섬세하게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서양 케익의 문화 안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함의 첫시작이라 볼 수 있다.

**앤티리스열도(les Antilles)**와 동남아시아의 열매들은 쥬스나 시럽으로 만들어져 과이 바닥에 바르는 « 크림-치즈(cream -cheese) »에 맛을 주게 하거나, 요리사의 비밀스러운 제작법에 의해 끊임없이 기교한 모양을 내기 위한 필수적인 하얀 볼륨으로 만들어 진다.

이 디저트는 미카엘 그루젠베르그(Mikhaïl Grouzenberg)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그는 중국에서 보로딘(Borodine)이라는 가명 하에 널리 알려져 있다.

이 가명은 그가 **쑨원(손일선)(Sun Yat-Sen)대통령** 당시 정치참사위원으로 있을 때 사용한 것이다. 그의 혁명주위자로서의 활동은 20 년전, 제정 러시아 시절부터 시작되었는데, 1906 년에 그는 망명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 보로딘은 이 시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과격파의 재능을 닦고 정세를 탐색하기 위하여 아메리카대륙을 거쳐 다녔다. 그는 바로 **앤티리스 열도의 구와델루페(Guadeloupe)**에서 에제지프 레지티무스(Hégésippe Légitimus)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바로 이 사람이 « 사보타즈닉(sabotajnik) », 즉 사보터르(saboteur, 방해자) 이라는 이름의 디저트를 보로딘이 발명하는데 재료를 공급한 것이다.

레지티무스는 « 검은 죠레스 »라는 별명을 가진 그 당시 구와델루페의 사회주의당의 창설자였다. 그의 케익에 대한 열정은 보로딘과의 친근을 두텁게 하는 반면, 그들의 정치적인 다른 견해는 서로를 멀어지게 했다. 즉, 망명자인 보로딘은 자신의 프랑스 이론가인 에밀 푸제(Emile Pouget)의 학설에 따른 방해공작의 장점을 주장하는데 반하여, 지역시장인 레지티무스는 비록 예전에 반항적이었지만 « 자본-노동 »의 합의를 주장하는 사상으로 설탕산업의 불황시기에서 배신자라는 평을 받으며 자신의 옛날 동반자들로부터 멀어졌다.

그들의 우정은 격렬한 논쟁과 심한 견해차이로 약해져 갔는데 어느 큰 식사모임에서 각자의 요리에 대한 관심을 통하여 다시 관계가 이어졌다.

이런 한 기회에 레지티무스는 보로딘이 모르고 있던, 아직 덜익은 사포티(sapotille)라는 열매를 맛보게하는 장난을 쳤다. 이 열매는 완전히 익지 않았을 때 특별한 짙은 맛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 러시아인의 입안을 단번에 말라 붙게했다.

헐떡이며 이런 맛의 원인을 묻던 그는 이 열매의 이름을 듣자마자 신나게 « 방해공작, sabotage » 하며 소리를 질렀는데 이것은 그의 친구를 크게 웃게 하는 일이 되었다.

이 불쾌한 경험은 보로딘에게 향이 짙은 그 앤틸리스 섬들의 많은 열매들을 **하얀크림치즈**와 잘 조합하여 향을 부드럽게 하고자하는 아이디어를 갖게 했는데 이 방법은 그때까지 이 지역의 케익제작법에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의 시도는 처음에 사포트(sapotes)과의 과일로 시작했는데 이것은 그 시절의 상황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발명한 것으로 훗날 그는 열대지방의 과일과 러시아식의 **하얀크림치즈**를 이용한 모든 디저트를 사보타즈닉(sabotajnik)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1923 년, 국제공산당(Kominter)의 임원인 그는 중국 남부지방에 도착했는데, 그의 베트남인 통역사, 훗날 **호치민(Hô Chi Minh)**에 의해 두 가지의 새로운 과일 즉, 비교할 수 없는 과일맛에 비하여 다루기가 무척 어려운 **망고스탄(mangoustan)**과 **루구구오(luguguo)**을 알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의 케익 제작법 연구를 계속하게 했다.

1927 년 4 월, 국민당(Guomindang)의 역전과 상하이(Shanghai)와 광둥(Canton)의 학살에 따라 그는 러시아로 다시 돌아갈 수 밖에 없었는데 그곳에서 그는 타스신문사(agence Tass)와 모스크바 매일 신문(Moscow Daily News)의 사장이 되는 직책을 얻어 맡게 되었다.

열대지방의 과일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이 케익 애호가는 반일본정부의 저항에 선도자들인, 중국에 있는 한국인들과의 접촉으로 자신의 명령하에 조직된 외국조직망을 창설하는데 이것은 동시에 물품공급을 위한 지점을 설립하기 위해서였고 이것은 열대성 미각에 전혀 맞지 않는 지역에서 그의 미각적 경향을 만족하게 하는 기회가 된다.

이때 그는 프랑스 요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옛날 자신의 베트남 통역사의 도움을 받는데 이 통역사는 그때 혁명에 관한 교육을 받기 위해 모스크바에서 머무르고 있었다.

1949 년부터 시작된, 간부급에 있는 세계적인 유대인 숙청운동이 심해짐에 따라 유명한 그의 명성도 어쩔수 없게 된다. 1951 년 5 월, 유배된 후 총살당한 케익 사보타즈닉의 아버지는 그래도 20 년동안 자기가 이용해 온 중국계 한국의 조직망을 통해 자신의 가족들을 탈출시키는데 성공했다. 그의 체포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ïka)가 시작된 후, 그의 예기치 않은 파란눈과 노랑머리의 한국계 자손들의 많은 노력에 의해서 밝혀졌는데 그들은 그에 관한 서류를 **KGB** 의 서류보관물에서 볼 수 있었다.

보로딘의 자손들을 받아들인 나라가 요구하는 철저한 의무를 지켜야 하는 러시아의 탈출자들인 그들이 그때까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자료는 1956 년의 모스크바 매일 신문의 재창건 사본인데 여기서 신문자의 폐업전의 사장의 제거의 이유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때 가족의 친구였던, 세계적으로 알려진 한국인 예술가가 이 사본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는 이것을 연극용 마스크를 만드는데 이용하였다. 이 예술가는 그것을 영악한 한국계의 마지막 자손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20 년 후에 보로딘에 관한 비밀문서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자손이었다. 그런데 이 서류를 보는 순간 이 자손의 놀라움은 금할길이 없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조상 보로딘이, 특히 동남아쪽의 외국의 지도자들과 교환한 서신들에서 보여준 것처럼, 국제적인 방해공작단(saboteurs)조직을 운영했다는 핑계로 선고를 받았다고 했기 때문이다.

보로딘은 심문때, 자신의 서문들 속의 비유는 위험한 음모자의 장비구입을 위한 것이 아니고, 케익 애호가인, 자기의 개인적 사용을 위한 신선한 과일과 통조림의 소규모 상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방어를 시도한 것으로 짐작된다. 심문자들의 계속되는 거만한 태도에 짜증이 난 그는 귀류법(歸謬法)에 의한 논증을 하기 시작했는데 예를들어,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안에서 라스콜니코프(Raskolnikov) 이름 대신 자주 쓰여진 라솔닉(rassolnik)이라는 단어는, 그렇다고해서 죄와 벌의 소설이 오이김치국에 대한 요리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고 강조했다.

무식한 심문자들이 화를 낼 때, 그는, 만일 당신들이 문학 텍스트와 단맛 디저트의 모든 비유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마르멜라도프(Marmeladov)\*라는 주인공을 설명할 수 있겠냐고 반박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런식의 설득은 그의 상황을 죽음으로 몰고갔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사보타즈닉(sabotajnik)은, 어쩔 수 없이, 보로딘을 케익의 순교자로 유명하게 하는데 이바지 한 것이다.

\* 마르멜라드(marmelade)라는 « 짬 »이라는 뜻의 단어에서 온 것으로, 이것은 성을 « 짬 »씨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것.